

110622 주일설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편(Psalm) 98:1-4

독수리가 노래부른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타조나 칠면조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새들은 노래하지 않아요. 카나리아나 종달새나 굴뚝새 같은 작은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큰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겸손하고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언제나 가장 작은 병에 담겨져 있다. -존 드라이든. 진짜 값진 향수는 작은 병에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 향은 적은 양이어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을 보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이 찬양하는 전반부(1-3절), 위대하신 왕께 대한 찬양을 언급한 중반부(4-6절), 그리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후반부(7-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심령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이한 일 즉,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향목들을 하나 하나 헤아려 본다면 불평은 감사로 변하고, 한숨은 찬양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

3.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실하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은 하나님

의 의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고, 선포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나 의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오늘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먼저, 새노래는 우리에게 낯선 노래입니다. 새노래는 가사도 낯설고 멜로디도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잘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를 부를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새노래를 부르라는 건 모르는 노래를 부르기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하다쉬, hadash] 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다시 세우다, 새롭게하다, 수리하다” 에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묵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한때 예수님을 정말 열심을 품고 사랑하셨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늘 점검해 보고, 그 사랑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빛이 나요! 정말로요! 삶에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감흥 없이 읽었던 성경말씀, 아무런 감동없이 불렀던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는 예일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학생들을 떠나보낼 때, “너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라는 찬양을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힘차게만

불렀던 찬양인데, 사랑하는 지체를 떠나보내면서 이 찬양을 불렀더니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평소와는 달리 특별한 감흥으로 불렀더니 새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별 감동없이 습관적으로만 읽었던 시편 말씀도 때때로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상황에 있는데, ‘내 처지랑 똑 같구나’ 라고 깨닫고 읽게 되면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시편이어도 그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읽었기에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방금 작사 작곡된 노래라 할지라도 묵은 마음으로 부르면 묵은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곡일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르면 새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부르실 때, 후렴이 나오면 가사를 안보고도 부르실 겁니다.

가령,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그런데, 때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사를 잘 안다는 이유로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하면 마치 머슬 메모리처럼 몸이 기억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가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음미하지 않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에도 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당시에는 주일에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주일 성수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나가기로 했지요. 그 때 교회에서 학생 성가대를 했었는데, 고3때 저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비록 주일 오후부터 나가서 공부를 해야했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더욱 집중해서 기쁜맘으로 감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번도 담임선생님께서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저에게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주일에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 그 곡이 고3 바쁜 한주를 지내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서 더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그 가사 하나 하나를 되새기면서 나와 함께 하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 때의 감동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새노래와 반대되는 것은 “찌든 마음” 이 아닐까 싶습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에 대해 깨어 있고, 그 여정은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찬송하는 여정, 새노래를 부르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그의 삶이 기쁨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과 환난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가 찬송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좋아서, 제게 유익하고 힘이되니까 했는데, 나중에 되어서야 찬양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해 보세요. 기가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소리를 높여 찬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은 모르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묵은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작은 새들처럼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